

99 퍼센트를 위한 경제

AN ECONOMY FOR THE 99%

특혜를 받는 몇몇 소수가 아닌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휴먼이코노미(인간중심의 경제)를 구축할 때입니다.



케냐 나이로비 옥스팜이 후원하는 여성 커뮤니티 그룹 '샤이닝 마더스(Shining Mothers)' 멤버들의 모습. 이들은 샤이닝 마더스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교육을 돕고,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있다. 2016. 사진 : Allan Gichigi / 옥스팜(OXFAM)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겨우 여덟 명이 전세계 하위 50%와 동등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때 나머지 인구,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의 경제 체제와 경제학의 원리들은 현재의 극단적이고, 지속 불가능하며, 정의롭지 못한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는 슈퍼리치에게만 과도하게 보상(rewarding)이 주어지는 것을 중단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체제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멀리 내다보는 정부, 노동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위하는 기업, 환경 보전, 여성 인권, 공평한 조세체제는 휴먼이코노미(인간중심의 경제)의 핵심입니다.

99 퍼센트를 위한 경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증가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라고 지적한 지 4 년이 지났고, 세계은행(World Bank)이 빈곤의 종식과 동시에 번영을 공유할 필요성을 목표로 삼은 지 3 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 세계 지도자들이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세계적 목표로 합의했지만 부자와 나머지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6 년 9 월 UN 총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1 퍼센트가 하위 99 퍼센트가 가진 부를 통제하는 세상은 절대로 안정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불평등 위기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 2015 년 이래로 전세계 상위 1 퍼센트가 나머지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8 명이 전세계 하위 50%와 동등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향후 20 년 동안 500 명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21 조 달러를 물려줄 것이고, 이는 13 억 인구를 지닌 인도(India)의 GDP 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 1988 년부터 2011 년까지 하위 10 퍼센트의 소득의 연간 증가액이 3 달러 미만인 반면, 상위 1 퍼센트의 소득의 연간 증가액은 이의 182 배에 달합니다.
- FTSE-100 (파이낸셜 타임즈 주식 거래 100 개사) 최고경영자들은 1 년 동안 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 만 명이 버는 만큼의 수입을 올립니다.
-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가 실시한 연구 결과, 지난 30 년 동안 하위 50 퍼센트의 소득 성장은 0 인 반면, 상위 1 퍼센트의 소득은 300 퍼센트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베트남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10 년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하루 동안 벌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불평등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범죄와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더 많은 이들이 두려움 속에 남겨지며,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만듭니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에서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대통령 당선에 이르기까지 인종주의에 대한 우려와 주류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환멸이 발생하는 가운데, 부유한 국가들에서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현상유지를 용인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징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바 그 효과는 임금 정체와 불안정한 일자리,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 증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면 과제는 격차를 더 심화시키지

않는, 긍정적인 대안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케냐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는 때때로 굴욕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격차는 빈곤층으로부터 부자들을 구분해 주는 벽으로 보입니다.

부자들의 자녀들의 일부는 자동차를 몰기도 하는데,

길을 걸어가갈 때면 먼지를 뒤집어 쓸 때도 있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몸에 튀니다.’

- 제인 무토니, 옥스팜 후원 단체인 샤이닝 마더스(Shining Mothers)의 회원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상황도 부유한 나라들과 동일하게 복잡하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했고, 이는 온 세계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8 명 가운데 1 명은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듭니다. 지난 1990 년에서 2010 년 사이에 경제 성장이 빈곤층에도 고루 이루어졌다면, 7 억 명 이상의 사람들(대부분이 여성)이 오늘날 가난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증세와 군사 및 기타 퇴행적 지출을 감소시키는 등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극도의 빈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4 분의 3 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두 배로 강화하지 않고서는 세계 지도자들은 2030 년까지 극도의 빈곤을 종식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런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대처법으로 반드시 분배를 증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99 퍼센트를 위한 경제’**는 대기업과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 불평등 위기를 어떻게 조장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든 잘못된 가정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좀 더 인간중심적인 경제에 기반하여 더 공정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세계에서는 이익이 아닌 ‘사람’이 기준이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불평등의 원인

현재 세계 경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이 최상위에 위치한 사람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옥스팜의 연구는 지난 25 년 동안 상위 1 퍼센트가 하위 50 퍼센트의 소득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었음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고사하고 소득과 부는 급속도로 상류층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업과 부자들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류층을 위해 일하는 기업

2015/16 년에 대기업들은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익은 높고, 세계 10 대 기업의 수익의 합은 180 개 빈곤 국가의 수익보다 더 큼니다.

기업은 시장 경제의 생명줄이고, 기업들이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일할 때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점차 부자를 위해 일하게 되면 경제 성장의 혜택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상류층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주고자 할 경우 기업은 노동자와 생산자들을 더 가혹하게 착취하게 되고,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갈 세금을 회피하게 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동자와 생산자 착취하기

주로 주식으로 급여를 받는 다수의 경영자들의 소득이 치솟을 때, 반대로 평범한 근로자와 생산자들의 급여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일부의 경우 심지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최고 정보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회사 내 보통 직원의 급여보다 416 배 많은 돈을 벌었다. 1980 년대에는 코코아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초콜릿 바의 값어치의 18 퍼센트에 해당하는 만큼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겨우 6 퍼센트를 받습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2100 만 명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매년 약 1500 억 달러에 해당하는 가치를 생산해 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의류 회사들은 인도의 면방기(cotton-spinning mills)와 관련 있는데, 이들은 주기적으로 소녀들을 강제 노동에 이용합니다. 가장 위태로운 환경에서 일하면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과 소녀들입니다. 전세계에 걸쳐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와 생산자들은 점점 더 적은 몫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수요를 축소시킵니다.

조세 회피

기업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적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이익을 높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국가들이 세금 우대나 면제, 낮은 세율을 내걸고 서로 경쟁하도록 합니다. 기업의 세율은 전세계에 걸쳐 낮아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광범위한 조세 회피와 더불어) 다수의 기업들이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애플사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4 년도에 유럽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0.005% 만큼 세금을 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해마다 조세 회피로 인해 천억 달러를 손해봅니다. 각 국가들은 면세 기간과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수십억 달러 이상을 잃습니다. 이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가난한 사람들로, 이 수십억 달러로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

기 때문입니다. 케냐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매년 11 억 달러를 잃는데, 이는 보건 예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고, 케냐에서는 산모 40 명 중 1 명이 출산 중에 사망합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를 부추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곧 **주주들에게 단기적 이익을 돌려주고자 하는 노력과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증가**입니다.

과도한 주주 자본주의 (Super-charged shareholder capitalism)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은 점차 단일 목표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주주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그 이익의 막대한 비중을 기업의 소유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에서는 1970년에는 주주들에게 이익의 10 퍼센트가 돌아갔지만, 현재는 70 퍼센트가 돌아갑니다. 인도에서는 그 비중이 그 보다는 낮지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기업에서 50 퍼센트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판한 사람들로써는 블랙락(세계 최대 자산 관리자)의 최고경영자인 래리 핑크(Larry Fink)와 잉글랜드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앤드류 헨데인(Andrew Haldane) 등이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증가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상인데, 왜냐하면 주주들 가운데 다수가 사회 내에서 부유한 계층에 속해 있고, 따라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연금 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에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영국에서 연금 펀드가 주식의 30 퍼센트를 보유했다면, 현재는 3 퍼센트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모든 이익은 생산자나 노동자들에게 지급되거나,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설비 또는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었던 돈입니다.

'점점 더 많은 기업 지도자들이 주식 환매(buybacks) 혹은 증배(dividend increases)와 같이 주주들에게 즉각적인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반대로 장기간 성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이나 숙련 노동력, 필수 비용에는 투자를 적게 합니다.'

- 래리 핑크, 블랙락 최고경영자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

작년 옥스팜 불평등 보고서 '1 퍼센트를 위한 경제' (An Economy For the 1%, Jan. 2016, OXFAM International)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 채굴, 의류 제조, 제약 및 기타 등 여러 부문의 기업들은 지속적인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 및 국내외 정책을 수립하는데 자신의 거대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셸(Shell)과 같은 석유 회사들은 세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나이지리아에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 때는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기술 부문에서조차도 점차 정실주의(cronyism)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은 워싱턴 최대 로비스트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독점금지법과 조세 문제를 놓고 유럽에서 끊임없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실 자본주의는 공공재와 빈곤 감소를 위해 사용될 비용으로 이러한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작은 기업들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정부와 유착 관계에 있어 카르텔을 구성하거나 독점력을 지닌 기업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유한 사람인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은 멕시코의 전체 휴대전화 서비스의 약 70 퍼센트와 유선 통신의 65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 퍼센트에 해당합니다.

불평등 상황에서 부자들의 역할

분명 우리는 부자의 시대, 혹은 두 번째로 맞이하는 '호황 시대(gilded age)', 즉 화려한 겉모습이 사회 문제와 부패를 가리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슈퍼리치들에 관한 옥스팜의 분석에는 10 억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모든 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 포브스(Forbes) 지가 선정한 억만 장자 1,810 명(그 중 89 퍼센트는 남성)이 세계 인구의 하위 70 퍼센트의 부에 해당하는 65 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많은 노력과 재능으로 부를 획득했지만, 옥스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억만장자의 부 가운데 3분의 1은 상속 받은 것이고, 43 퍼센트는 정실주의(cronyism)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가 축적되면 그 스스로 가속도를 냅니다. 슈퍼리치들은 최고의 투자 자문을 얻기 위해 쓸 돈이 있고, 슈퍼리치들이 보유한 부는 2009년 이후 해마다 평균 11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저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축적 비율입니다. 헤지 펀드를 통했던, 예술 작품과 빈티지 자동차로 가득 찬 창고를 이용했던 기밀 유지 수준이 매우 높은 자산 관리 산업(industry of wealth management)은 슈퍼리치들의 부를 성공적으로 늘렸습니다. 빌 게이츠(Bill Gates)의 재산은 그가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떠난 이후 많은 재산을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50 퍼센트 혹은 250 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만약 억만장자들이 이러한 이익을 계속해서 확보할 경우 25년 후에는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미 부자인 사람은 더 부유해 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재산 및 소득 스펙트럼의 최상위에 있는 막대한 부는 불평등 위기의 분명한 증거이자, 극심한 빈곤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저해합니다. 하지만 슈퍼리치들은 단순히 재산 증가를 순수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유순한 수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재산 증가를 영속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투자입니다. 최대주주(특히 비공개 기업투자 및 헤지 펀드) 가운데 일부

로서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기업의 행동을 왜곡시키는 주주 숭배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재산 불평등을 처음부터 어떻게 정당화하려고 해도, 재산은 사회적 효용 면에서 모든 가능한 합리적 정당화를 뛰어넘어 불어나고 스스로 영구화한다.'

- 토마스 피케티, 경제학자, <21세기 자본>의 저자

조세는 회피하고 정치는 구매한다

세금을 가능한 적게 내는 것은 대다수의 슈퍼리치들에게 핵심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등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전세계에 걸친 비밀스런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조세 피난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각 국가들은 이러한 슈퍼리치들을 유인하기 위해 경쟁하고, 자신의 주권을 팔아 넘깁니다. 슈퍼리치들은 탈세를 위한 목적지로 전세계에 걸친 넓은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 2 백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할 경우 영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며 부동산을 구입할 권리를 살 수 있고, 관대한 세금 우대 조치의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세 피난처인 몰타에서는 65 만 달러로 완전한 시민권을 살 수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은 7 조 6 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부가 역외에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아프리카만 해도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슈퍼리치들 때문에 140 억 달러의 조세 수입을 손해 봅니다. 옥스팜은 이 금액으로 4 백만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보건 비용과 모든 아프리카 아동을 학교에 보내기에 충분한 교사를 고용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부유층 및 최상위 소득층에 대한 세율은 부유한 국가들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1980 년대에 70 퍼센트였는데, 현재는 40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부유층에 대한 세율이 여전히 낮습니다. 옥스팜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세의 최고 세율 평균이 30 퍼센트이고, 대부분은 징수되지 않습니다.

슈퍼리치들 가운데 다수는 정치력을 확보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 조항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 힘과 영향력, 연줄을 활용합니다. 브라질의 억만장자들은 감세를 위해 로비활동을 벌이면서 상파울로에서는 망가진 인프라를 외면한 채 교통체증을 피해 헬리콥터로 출근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일부 슈퍼리치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결과를 얻고, 선거와 공공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인 코흐 형제는 미국 내 보수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여러 영향력있는 싱크탱크와 티파티(Tea Party) 운동을 지원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의 평판을 떨어뜨리는데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슈퍼리치와 그들의 대리인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정치적 영향력 행사는

게임의 승자들이 더 많은 자원을 가져감으로써 다음 게임에서 더 크게 승리하도록 하는 '강화된 순환 구조'를 구축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어떠한 사회도 이와 같은 불평등 증가를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처럼 축적된 부가 다시 흘러나온 경우는 인간 역사상 단 한번도 없습니다.'

- 닉 하나우어, 미국 억만장자이자 기업가

1 퍼센트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잘못된 가정들

현재의 1 퍼센트의 경제는 일련의 잘못된 가정들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가정들은 여러 정책과 투자, 정부와 기업, 부유한 개인들의 활동의 근거가 되며,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좌절시킵니다. 이러한 가정들 중 일부는 경제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는 '신자유주의'로 묘사되는 경제에 대한 지배적 관점에 관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상부에서 창출된 부가 낙수효과를 통해 모두에게 '흘러내린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자유주의를 불평등 심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가정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성장을 추구하는 대신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기에 빠트렸습니다.'

- IMF (국제통화기금)

1. **잘못된 가정 1: 시장은 항상 옳으며,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현실에서 시장은 스스로가 사람들의 공동 생활을 구성하고 가치있게 만들거나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최선의 방식임을 증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부정과 정실주의(cronyism)가 일반인들의 돈으로 어떻게 시장을 왜곡하고, 금융 부문의 과도한 성장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목격했습니다. 보건이나 교육, 물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가난한 사람들, 특히 여성을 소외시킨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2. **잘못된 가정 2: 기업은 이익을 최대화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주들에게 이윤을 돌려준다.**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부유한 사람들의 수입은 불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노동자와 농민, 소비자, 공급자, 지역사회, 환경에는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대신 모든 사람이 번영을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을 조직할 수 있는 여러 건설적인 방안이 존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3. **잘못된 가정 3: 극단적인 개인적 부는 자연스러운 성공의 표시이며, 불평등은 상대**

적인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엄청난 부가 극소수의 손에 집중된 새로운 호황 시대의 도래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정치적으로 부패하기 쉬우며, 공동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부의 공정한 분배가 필요합니다.

4. **잘못된 가정 4: GDP 성장은 정책 결정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GDP 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만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라고 1968 년 로버트 케네디가 말한 바와 같이, GDP 는 전세계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엄청난 양의 여성들의 노동을 측정하지 못합니다. 불평등을 고려하지도 못합니다. 잠비아와 같은 나라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기간동안 동시에 매우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5. **잘못된 가정 5: 우리의 경제 모델은 성 중립적이다.** 사실 공공 서비스 삭감, 일자리 안정성 저하, 노동자의 권리 침해 등은 여성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여성은 가장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 (GDP 에 산정되지 않지만, 이것 없이는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6. **잘못된 가정 6: 지구의 자원은 무한하다.** 이것은 잘못된 가정일 뿐만 아니라 지구에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모델은 환경을 개발하면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모델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섯 개의 가정들은 신속하게 반복되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났으며, 번영과 안정성의 분배를 가져오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절벽 위로 내몰고 있습니다.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대안, 즉 휴먼이코노미(인간중심의 경제)가 긴급하게 요청됩니다.

'GDP 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만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 로버트 케네디, 1968

"이렇게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서, 우리는 절대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없습니다."

- 샬롯 퍼킨스 길만, 사회주의자이자 여성 참정권론자

99 퍼센트를 위해 설계된 휴먼이코노미(인간중심의 경제)

우리는 모두 함께 1 퍼센트가 아닌 99 퍼센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를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 체제로부터 불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집단은 우간다이든 미국이든 관계없이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류는 놀라운 재능과 막대한 부, 무한한 상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활용하여 소수 기득권층이 아닌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휴먼이코노미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휴먼이코노미는 더 공평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일자리가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누구도 병들었을 때 비용을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는 지구의 한계 범위 내에서 발전할 것이고, 더 낮고 더 지속 가능한 세계를 새로운 세대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시장은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인 엔진이지만, 그것이 전체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엔진인 척 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성장의 열매가 공평하게 분배되고, 기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특히, 그러나 배타적이지는 않도록, 가장 가난한 국가들에서) 보건 및 교육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합니다.

휴먼이코노미는 오늘날의 불평등 위기를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핵심 요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는 밑그림만 제공할 뿐이지만, 앞으로의 토대를 제시합니다.

휴먼이코노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 **정부가 99 퍼센트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정부는 극심한 불평등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무기이며, 휴먼이코노미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부유한 소수 및 그들의 로비스트들이 아닌 모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여성과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민 공간이 다시금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게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더 믿을 수 있게 될수록 우리 사회도 더 공정해질 것입니다.
2. **정부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할 것입니다.** 세계화가 언제까지 오직 기득권층에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세금과 노동자의 권리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세 피난처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국가들은 동일 선상에서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세계적 합의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기업들과 부자들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노동자들이 적절하게 임금

을 지금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기업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하는 형태의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활동의 결과물은 그것을 창출한 주체, 즉 사회와 노동자, 지역사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기업들의 로비 활동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민주주의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정당한 임금과 세금을 지불하고,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에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해 부의 극심한 편중 해소하기.** 오늘날, 미래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대 호황시대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사회에 공평하게 공헌해야 하고, 부당한 특권을 누리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부자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는지 감시해야 하고, 부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증가시켜 운동장의 기울기를 편평하게 해야 하며, 슈퍼리치들의 탈세 행위를 단속해야 합니다.
5. **휴먼이코노미는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성 평등은 휴먼이코노미의 중심에 자리잡아 인류의 절반이 삶에서 동일한 기회를 누리고,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과 보건에 대한 접근권을 비롯하여 여성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사회적 규범은 더 이상 사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임금을 받지 못하는 돌보는 일(unpaid care work) 또한 인식되고, 줄어들며, 재분배될 것입니다.
6. **기술은 99 퍼센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뉴테크놀로지는 우리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데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특히 기술 부문에서의 통제를 통해서만 일어날 것입니다. 정부의 연구는 스마트폰 등 현시대 가장 위대한 혁신적 성과에 이미 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이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7. **휴먼이코노미는 지속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해 작동할 것입니다.** 화석 연료는 산업화 시대 이후 경제 성장을 주도했지만, 다수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경제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석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오염은 전세계에 걸쳐 수백만 명을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는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 극심한 타격을 입힙니다. 지속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는 지구의 범주를 존중하는 보편적인 에너지원 이용 및 전력 성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8. **진짜 중요한 문제의 가치를 매기고 측정하기.** 이제는 GDP 를 극복하고 다른 측정 도구들을 활용하여 인간의 발전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측정 도구들은 전세계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을 측정하게될 것입니다. 이 때 단순히 경제 활동의 규모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부가 어떻게 재분배 되는지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너무 늦기전에 휴먼이코노미(인간중심의 경제)를 건설할 수 있고, 건설해야만 합니다.